

'전속분쟁' 동방신기 3人-SM 서류제출 오늘(11일) 마감, 화해가능성 귀추 주목

입력 2009. 9. 11. 11:31 · 수정 2009. 9. 11. 11:31



[뉴스엔 박세연 기자]동방신기 멤버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서류가 9월 11일까지 제출된다. 향후 이번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검토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양측간 화해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월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동방신기 3인 멤버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간 1차 심리가 8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법원은 양측에 9월1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했다.

당시 법원은 "심문은 이날 한차례로 마무리하고 3주 뒤인 9월11일까지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날까지 서류 제출을 완료한 뒤 법정의 선고를 기다리는 수순을 밟게 된다. 가처분신청의 경우 선고 기일이 미리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양측이 법정에 다시 출두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SM 측 관계자는 "11일까지 서류를 제출한 뒤에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3인 멤버들이 가처분신청 당시 법원에 동방신기 활동과 관련한 수익 및 지출내역 확인을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했고 이같은 요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가운데 SM 측은 "증거보전 신청 관련 서류의 경우 가처분신청 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으로 아직 법원으로부터 제출 범위와 기간에 대한 특정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세연 psyon@newsen.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